

까지

~까지(끝점), ~까지(기한); ~까지(심지어)

시간·거리·나열 등 어떤 범위의 끝을 나타냅니다. 부터 또는 에서가 여는 범위를 닫아 줍니다.

■ 결합 방법

용법	시작 표현	예
끝 시간	부터	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
끝 장소	에서	집에서 학교까지
기한 — 그 전에	—	금요일까지 내세요
여기까지	—	여기까지 하겠습니다
심지어, 게다가	—	비까지 왔어요
기간에는	동안을 대신 씀	세 시간 동안 — 세 시간까지 (×)

■ 언제 쓰나요

까지는 이 조사 무리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모두 받는 유일한 조사이므로, 어느 쪽에서든 쉬운 쪽에 해당합니다: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, 집에서 학교까지.

기한과 함께 쓰면 ‘그때까지 지속’이 아니라 ‘그 시점 전에 완료’라는 뜻이 됩니다. 다섯 시까지 오세요는 다섯 시 전에 도착하라는 뜻이고, 다섯 시까지 기다렸어요는 다섯 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뜻입니다. 어느 뜻인지는 동사가 결정합니다.

또 다른 쓰임으로 ‘심지어, ~마저’라는 뜻이 있어, 예상을 넘어서는 것을 나타냅니다: 비까지 왔어요 (게다가 비까지 왔다). 이때는 범위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선다는 느낌을 줍니다.

■ 예문

- 1 오후 여섯 시까지 기다릴게요.
- 2 집에서 학교까지 삼십 분 걸려요.
- 3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 주세요.
- 4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왔어요.
- 5 너까지 나를 의심해?
- 6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■ 비교

부터 부터가 시작을, 까지가 끝을 나타냅니다. 시간은 부터 ... 까지로, 장소는 에서 ... 까지로 짝을 이룹니다. 장소는 부터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/ 서울에서 부산까지
동안 까지는 범위가 끝나는 시점을, 동안은 지속된 길이를 나타냅니다. 지속 시간을 말할 때는 반드시 동안을 쓰고까지는 쓰지 않습니다. 세 시까지 공부했어요. (세 시가 될 때까지) / 세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. (세 시간이라는 기간 동안)
도 ‘심지어’의 뜻일 때까지는 도와 겹치지만, 까지에는 예상보다 더 나아갔다는 놀라움이 담깁니다. 도는 단순히 하나를 더 보탬 뿐입니다. 비도 왔어요. (비도 왔다) / 비까지 왔어요. (하필 비까지 왔다)

■ 주의

- ✗ 두 시간까지 기다렸어요.
○ 두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.
까지에는 길이가 아니라 시점이 필요합니다. 두 시는 시점이지만 두 시간은 기간이므로 동안을 씁니다.
- ✗ 서울부터 부산까지
○ 서울에서 부산까지
장소의 범위는 에서로 시작합니다. 끝을 나타내는 까지만 시간과 장소에 모두 쓰입니다.
- ✗ 다섯 시까지에 오세요.
○ 다섯 시까지 오세요.
까지 자체가 시간을 나타내므로 뒤에 예를 붙이지 않습니다. 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.